



광양매화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이 활짝 핀 매화로 가득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 다시 만나는 매화’ …토요일 17만명 다녀갔다

지역축제 현장을 가다

광양매화축제

4년을 기다려온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광양시가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공식 개막한 광양매화축제의 누적 방문객(11일 기준)은 총 55만여 명으로 토요일 당일에만 1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둔치주차장과 도사주차장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를 증차하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방문할 것을 주문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광양매화축제를 즐길 수 있는 주말 광양시티투어의 폭발적 호응에 투어버스를 1대 늘리고 평일에도 10인 이상 예약 시에는 운영기

로 방침을 바꾸었다.

시는 광양매화축제 전 기간 광주~광양읍~광양매화마을을 오가는 40인승 왕복 임시버스를 매일 운행하는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된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리버마켓, ESG ‘건강줍깅 in 매화축제’ 등 트렌드를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했다.

광양매화축제 최초 스폰서십 도입으로 관내에서 사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에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아이패드 등의 경품 기회를 주는 ‘황금 매화·매실 GET’ 이벤트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돌이와 함께하는 AR 인שא, 매화꽃길 BGM 저장소, 흥쌍리 명인의 쿠킹클래스 ‘흥명인의 매實맘心’ 등 광양의 정체성을 살린 오감만족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교통혼잡 최소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실시간 교통상황 안내 등 관광수용태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축제장 임시버스 큰 호응
무료셔틀 증차…평일 방문 당부
리버마켓·‘건강줍깅’ 등 풍성
전국노래자랑 등 연계행사 확대

시는 축제장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남도속박활인 빅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시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된 데다 구례 산수유 축제 등이 겹치면서 지난 토요일 방문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양시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매력적인 축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매화마을의 진면목과 다채로운 체험을 여유있게 즐기려면 상춘객이 물리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성진 기자



▲상춘객들이 광양매화축제장을 찾아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있다. (위부터)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10일 개막식을 갖고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관람객들이 광양매화축제 장터에서 지역 특산품을 고르고 있다.

/광양시 제공

주차 걱정 ‘옛말’ …유럽형 프리마켓 눈길

광양시가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에서 셔틀버스 운영 및 유료주차장 도입 등으로 교통혼잡 최소화, ESG 실천 등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또한, 축제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섬진강을 배경으로 유럽형 프리마켓 ‘리버마켓@섬진강’을 펼쳐 주차장에서부터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시는 축제장의 가장 큰 현안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무료와 유료로 유연하게 전환했다.

섬진강 둔치주차장은 전 축제 기간 무료로 운영하고, 도사주차장과 섬진주차장은 평일엔 무료, 상춘객이 물리는 주말엔 유료로 전환했다.

도사·섬진 주차장 평일 무료, 주말 유료
둔치주차장 무료…교통상황 실시간 안내

주 행사장과 연결한 매화주차장은 축제 기간 내내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3시간 기준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는 1만2,000원이며, 각각 5,000원권과 1만 원권 쿠폰으로 되돌려준다. 3시간을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각각의 주차장은 내비게이션에서 신원둔치주차장, 매화주차장, 다압면 도사리 77(도사주

차장), 도사리 산 82(섬진주차장)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축제 기간 주말(오전 8시~오후 6시) 둔치와 도사주차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개화 상황을 안내하고 수월정, 신원교차로 등 주요 병목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112개 부스로 꾸며진 ‘리버마켓@섬진강’에서는 농부, 작가들이 생산하거나 손수 만든 작품들을 선보여 축제장 가는 길의 즐거움을 한층 선사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